

하루를 시작하며



이종실 제주문화원 부원장·수필가·시인

요요와 부메랑에 대하여 가져 보는 생각

제9회 지방선거를 치른 지 일주일 이 되는 날이다. 당선자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일등을 놓친 이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싶다. 이와 함께 마음 한구석에 뭔가 시원치 못한 게 걸려있는 듯 개운치 않은 느낌을 지우기 어려움을 밝힌다. 조금씩 내용과 유형만 달리할 뿐 대부분의 후보들이 대상이다. 실제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행동들, 전투적 자세를 갖추어 거짓과 비방으로 유권자를 속이고 상대방을 공격한 행위들이 있었다. 당사자들은 이제 어떻게

제모습을 찾아오고, 어떻게 그 상처와 업보를 감당할까. 이제는 기뻐함이나 실망함에 이어서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행태에 대한 책임을 도모할 때다. '요요'와 '부메랑'이 생각난다.

요요는 원형의 가운데 막대를 축으로 실 또는 끈으로 연결해 손가락에 끼워 늘어뜨리면 스스로 내려갔다 제자리로 돌아오곤 하는 장난감이다. 요요 현상은 이 물건의 이런 성질에 빗대어 식이요법으로 체중을 감량한 후 이를 중지했을 때 급격하게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가는 걸 말한다. 무리한 절식 행위는 인체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대사량을 줄이고, 식욕을 증가시켜 살이 더 찌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요요 현상은 없던 병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한다.

부메랑은 본래 호주의 원주민들

이 사냥이나 전쟁 시에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던 무기다. 평평한 막대기 모양으로 중간 부분이 구부러져 있어 공중으로 던지면 되돌아오는 속성을 가진다. 부메랑 효과는 주로 어떤 행위가 주인의 의도한 목적을 벗어나 불리하게 되돌아오는 결과를 가리킨다. 경제 용어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경제원조나 자본투자를 제공했다가 생산품의 역수입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개발이 초래한 환경 파괴가 다양한 생존 문제나 자연재해로 돌아와 다시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설명한다.

요요와 부메랑의 부작용과 위험성이 선거만큼이나 흥미를 끈다. 후보들은 편을 이루어 승리를 위해 많은 적든, 평소와 다른 가면으로 자신을 포장했고 사나운 언사와 태도

로 상대를 대했다. 유권자에게 짜증을 유발하고 때로 분노를 안겼다. 이제 요요가 되돌아오듯 본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신나게 사용하며 상대를 쳐대던 무기들도 회수해야 한다. 요요는 그 영향의 범위가 자신의 모습과 행동에서 그친다. 하지만 부메랑은 다르다. 상대에게 끼친 위해만큼 혹은 그보다 더 크게 주인을 해칠 수 있으니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부메랑은 높이에서조차 위험하다. 그 요령을 살펴보니, 던질 때는 한 손끝을 가볍게 쓰지만 되돌아올 때는 양쪽 손바닥을 잘 사용해야 다치지 않는다. 당선인들의 요요 현상과 부메랑 효과 처리에 관심이 더 많다. 이들의 행보는 주민의 복리와 지역사회의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이들이 어떻게 난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발휘하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

열린마당

청색 꽃게 열풍, 제주 바다가 보내는 경고



윤다현 제주대학교 3학년

가진 청색 꽃게의 출현은 바다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주 바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감하는 해양 거문대 하나다. 과거 흔했던 어종은 줄어들고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아열대성 생물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청색 꽃게 역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청색 꽃게 포획은 생태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생물이 제주 바다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청색 꽃게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 있으며, 기후위기와 해양환경 변화가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제주 바다는 바다와 함께 살아온 섬이다. 지금 제주 해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색 꽃게 열풍은 우리에게 제주 바다의 변화를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지 묻고 있다.

최근 제주 해안가에는 낮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방파제와 갯바위 곳곳에서 청색 꽃게를 잡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SNS에는 포획·요리법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쯤조차 생소했던 청색 꽃게가 어느새 제주의 새로운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 현상을 단순한 유행이나 체험거리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청색 꽃게는 본래 아열대 해역이나 육지부 일부 연안에 주로 서식하던 생물로, 과거 제주 연안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종이었다. 강한 적응력과 번식력을

뉴스-in

지하수 저류댐 위킹그룹 본격 가동

K-water 조사 맞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추진 중인 지하수 저류댐 상세조사에 제주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지하수 저류댐 위킹그룹'을 구성해 본격 운영.

공무원, 지하수·지질·환경 분야 전문가, 주민 대표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위킹그룹은 지하수 저류댐 상세조사 계획 및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상세조사 과정 중 의견 수렴 및 자문,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

임흥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지하수 저류댐 사업은 제주 미래 물 관리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객관적인 조사와 도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석면 법정관리기준 준수율"

○...서귀포시가 석면건축물에 대해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건축물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 6월 중 석면건축물 소유자 및 석면안전관리인을 대상으로 법정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

또한 지난해 말부터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 24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할 계획.

시 관계자는 "석면건축물 47동(어린이집 8, 지역아동센터 1, 기타 38)에 대한 석면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건축물 소유자와 석면안전관리인은 법정 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

사설

남북교류사업 재개, 제주도가 물꼬 텃다

제주도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재개했다. 지난달 의료기기 등을 북한에 전달하면서 2010년 5·24 조치 이후 중단됐던 제주도의 남북교류가 16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사된 첫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다.

제주도는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남북 협력물품이 지난 5월 4일 중국 대련항을 거쳐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와 북한 측 협력단체인 조선장애자후원회사가 올해 2월부터 협의를 진행하면서 성사됐다. 전달된 물품은 신장 투석기 등 의료기기와 소나무 재선충 약품, 한라봉 묘목 등 1억6000만원 상당이다. 남북 협력사업은 오영훈 지사가 지난해 11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북한 감귤보내기사업에 협력을 요청하면서 본격화

됐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남북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협력의 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협력은 단계별로 진행하되 양돈·관광산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 평화공존'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구상이다. 하지만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 노선에 가로막히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남북협력 교류사업에 물꼬를 튼 것은 의미가 크다. 제주도는 1998년 전국 최초로 북한 감귤보내기사업을 시작하면서 북한의 신뢰를 쌓아왔다. 앞으로 남북 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남북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여성·청년의 정치 참여 여전히 높은 벽

6·3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제주 청년과 여성의 정치 진출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제주도의회 지역구 당선인 32명과 비례대표 13명 등 총 45명의 당선인 가운데 만 39세 이하 청년 정치인은 3명으로 6.7%에 그쳤다. 여성 당선인은 12명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3명 늘었지만 이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8석에서 13석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 여성 지역구 당선인은 단 3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가 계속 강조돼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현실의 벽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준다.

이번 선거에서 고의숙 교육감 당선인은 '제주 최초 민선 여성 교육감', 강성의 당선인은 '제주 최초 3선 여성 도의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환영할 일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남성 정치인에

게는 불지 않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여전히 반복적으로 따라붙는 현실은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진출이 여전히 특별한 사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 정치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일자리에서부터 주거, 육아 등에 이르기까지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청년 정책은 이들 당사자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반영될 때 더 현실성을 갖는다. 더구나 제주주는 청년이 계속 빠져나가는 지역이어서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사멸정 과정에 참여할 통로를 넓히는 일은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더 건강한 민주주의와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내고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 차원의 후보 발굴과 육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82-3644 010-4690-3636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제주토박이

제주백도라지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모지·문중모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모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